

제3차 한국인삼약초산업 전략화 세미나

한국 인삼업계의 대응현황과 문제점

서 종 혁 박사 / 농림기술관리센터장

인삼산업의 여건변화와 정책적 대응방안

서 종 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목 차 >

1. 인삼산업의 의미와 발전잠재력
2. 인삼산업의 실태와 문제
3. 인삼산업의 여건변화와 대응과제
4. 인삼산업의 발전방향
5. 맺는 말

1. 인삼산업의 의미와 잠재력 : 우리에게 인삼은 무엇인가?

- ① 인삼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특산품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名品
- 우리나라는 인삼생육에 적합한 자연조건과 오랫동안 축적된 인삼재배 및 가공기술, 국가의 전매품으로서 쌓아 온 명성과 신용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에 인삼종주국으로 알려지고 있음
 -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특산물로 중국과 주요 교역상품¹⁾
 - 우리나라의 홍삼은 북한산 인삼과 함께 세계 최고상품이자 최고가격으로 거래됨으로써 국제시장에서 품질에 있어서 “큰 소리를 치며” 판매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상품

1) 우리나라는 AD 549년 중국 초나라와, AD 627년 당나라와 인삼교역을 하였고, AD 739년에는 발해의 문왕과 일본이 인삼교역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음

- 동양의 신비한 영약으로 태권도, 김치 등과 함께 우리나라의 상징물로 세계최고로써 한국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해 고급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지역특산 명품으로써의 역할

② 인삼은 밭작물로 한계농지 및 노령화, 부녀화 한 노동력과 같은 농촌지역의 유희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대체농산물이기 때문에 농가의 주요한 소득원이 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농촌 지역경제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

- 2001년 현재 인삼생산에는 약 2만여 호의 경작농가와 200여 가공업체와 수많은 유통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수출액만도 약 75백만달러로 농산물로는 단일품목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인삼은 2001년 전체 농작물 재배면적의 0.6%, 재배농가수의 1.4%에 불과하지만 수출액의 5.5%를 차지

<표 1> 우리나라 농업부문에 있어서 인삼의 비중

	농축산물(A)	인삼(B)	구성비(B/A)
재배농가수(천호)	1,354	19	1.4
재배면적(천ha)	2,089	13	0.6
수출액(백만\$)	1,370	75	5.5

- 인삼경작 및 홍삼제조를 자율화한 1996년이래 비록 재배 농가수는 23천호에서 19천호로 약 47% 감소하였으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각기 94천ha에서 130천ha와 119천톤에서 132천톤으로 늘어나고 있음

③ 고급화 및 다양화하는 식품소비구조의 변화와 건강식품을 선호하는 추세에 부응하여 고급건강식품으로써, 그리고 다양한 한약제품이나 의약품제조가 가능한 원료 농산물로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전망

- 소득수준의 증가와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로 건강식품 또는 한약재로써 인삼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
- 홍삼중탕기의 개발 등으로 인해 인삼소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
- AIDS나 당뇨병 등 각종 성인병 치료제로써 인삼의 새로운 약리 효능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어서 고급의약품 원료로써 인삼수요

4 인삼산업의 육성을 위한 범 국가적인 노력의 축적

- 100여 년 이상의 오랜 기간동안 국가의 전매품으로 보호, 관리해왔으며, 농산물로서는 유일하게 육성·관리를 위한 [인삼산업법(1995)]을 제정하였으며, 법률로 정한 기공 및 유통, 품질기준 등을 보유
 - 인삼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인삼연초연구원(2002년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중앙연구원으로 개칭)’과 ‘고려인삼학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인삼부문의 연구를 주도하고 있음
 - 인삼생산자단체인 ‘인삼협동조합 및 중앙회(2000년 7월 농협중앙회에 통합하고, 2002년 8월에는 (주)농협인삼주식회사 설립)’의 설치, 운영
-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인삼은 생육에 적합한 자연조건과 축적된 기술수준 등으로 인해 오래 전부터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특산 명품으로 널리 알려져 왔으며, 의약품의 원료이자 건강식품으로써 한국 생명공학기술의 결집체로써 국민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 문화적 자존심임
- 농촌 노동력부족과 노임상승 등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와 수출시장에서 한국인삼의 점유율하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노령화사회의 진입과 함께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인들의 건강에 대한 늘어나는 관심을 고려할 때 앞으로 건강문화산업으로써 인삼의 발전가능성은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됨

2. 인삼산업의 실태와 문제 : 인삼산업, 무엇이 문제인가?

가. 인삼의 생산실태와 문제

- 재배면적은 ‘90년대 이후 감소하다가 인삼재배 및 홍삼제조의 자율화이후 1996년 8,940ha를 기점으로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
 - 재배면적은 1995년의 9,375ha에서 2001년에는 13,018ha로 증가하고 같은 기간 생산량은 11,971톤에서 13,215톤으로 증가하여 수출이나 내수가 늘어나지 않을 경우 수급불안과 가격하락의 우려가 있음
 - 인삼경작 농가수는 1995년의 23,172호에서 2001년의 19,310호로 감소

<표 2> 우리나라 인삼의 생산실태

	1990	1995(A)	2001(B)	B/A(%)
재배농가수(호)	36,404	23,172	19,310	83.3
재배면적(ha)	12,184	9,375	13,018	138.9
생산량(톤)	13,887	11,971	13,215	110.4
호당 경작면적(ha)	0.335	0.405	0.674	166.4
ha당 생산량(톤)	1.140	1.277	1.015	79.4

자료: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2002

- 인삼은 타 작물에 비해 자연조건의 영향²⁾을 크게 받아 오래 전부터 풍기, 금산, 강화, 개성 등 중부내륙 지방³⁾에 주산지를 형성하고 있음
 - 소백산 인근의 풍기, 덕유산 인근의 금산과 진안, 속리산 인근의 청원·괴산·음성, 그리고 경기도 북부지방에서 주로 생산되며, 충청도·이남 지역에서는 생육 과정에서 부패가 심해 5~6 연근재배가 어려움
 - 2001년 현재 6 연근은 전체 인삼재배면적의 4.67%에 불과하지만 김포, 개성, 용인, 안성, 강원조합 등 충북이북에서는 10%이상임
- 재배기술 진보에 따라 재배가능 지역이 확산되면서 군사분계선 이북(파주 장단 등)에 신 산지를 개척하거나 임간재배가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 충북, 전북 및 전남지역 등을 중심으로 直播에 의한 가공용 원료삼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전업농이 출현
 -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14 개 지역인삼협동조합을 조직, 운영하고 있는데 강화 및 금산지역은 단일 郡만으로 조합을 구성하고 강원, 전북, 전남지역은 하나의 道를, 경남지역은 별도조직 없이 영동조합에 포함

2) 일반적으로 작물은 기온과 강수량, 무상일수와 결빙일수, 적설량, 토양, 토질 등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지역농업이나 주산지를 논의할 때 이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3) 구체적인 인과관계는 입증하기 어려우나 인삼주산지는 대체로 무상일수 140~180일, 겨울강수량 450mm이상, 기온연교차 28도이상에 해당하는 온대중부림에 걸쳐 분포되고 있음

<표 3> 지역인삼조합별 관할 구역 및 생산실태, 2001

(단위: ha)

조합	시도	관할 지역	생산 실태			
			면적	경작인	농가	호당면적
강화	인천	강화군(인천광역시)	60(8.5)	369	220	0.27
김포	경기	김포, 파주, 고양(경기), 인천광역시(강화제외)	259(44.6)	1,171	1,171	0.22
개성	경기	동두천, 의정부, 구리, 포천, 연천, 양주, 남양주, 가평, 양평	581(114.9)	2,247	1,135	0.51
용인	경기	광주, 여주, 이천, 용인, 시흥	615(56.9)	1,422	804	0.76
안성	경기	안성, 화성, 평택, 오산, 수원(경기), 천안(충남)	707(62.4)	2,316	530	1.33
충북	충북	충북 전 지역(영동, 옥천군 제외)	2297(66.3)	6,528	1,758	1.31
영동	충북	영동, 옥천(충북), 김천, 구미, 성주, 고령(경북), 경남 전지역	673(1.8)	2,364	775	0.87
서산	충남	서산, 태안, 홍성, 예산, 당진, 안산	841(59.6)	1,440	1,440	0.58
부여	충남	논산, 보령, 공주, 부여, 서천, 청양, 연기, 대전	870(31.1)	1,958	1,934	0.45
금산	충남	금산군	1,003(0.0)	4,088	3,246	0.31
전북	전북	전북 전 지역	3,297(57.1)	6,476	3,227	1.02
전남	전남	전남 전 지역	275(22.7)	233	200	1.38
풍기	경북	경북(대구, 구미, 김천, 성주, 고령제외)	784(0.2)	1,836	786	1.00
강원	강원	강원 전지역	757(81.1)	2,408	798	0.95
합계	-	-	13,018(608.7)	34,856	18,024	0.72

주 : () 내는 6년근 인삼재배면적임

- 인삼은 반음지성식물로 시설재배를 해야하며, 연작피해로 받은 10년, 논은 5년간 이어짓기 곤란하며, 생육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중도폐지율이 높고(6년근 중도 폐포율 42.5%) 생산기반정비나 규모확대 어려움
 - 인삼생산에 있어서 고질적인 문제인 연작장해와 중도폐포를 절감할 수 있는 삼포고정 기술개발이 미흡하며, 직파재배나 산양삼재배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부족
- 그동안 인삼 전용농약(15종)과 채굴기, 이식기 등 인삼 전용농기계(16종) 등을 개발하였으나 移植, 除草, 해가림 등 대부분의 작업이 경사지 및 시설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계화에 한계
 - 지역특산인삼이나 산양삼, 고품질 대편인삼의 생산, 직파재배를 위한 자재 및 기술 등은 아직 초보단계임

- 6년근 홍삼포의 단보당 생산비가 비싸고, 재배기간이 4~6년이나 소요되기 때문에 생산에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고 자본의 회임기간이 김
- 특수한 생육환경을 선호하기 때문에 적지확보가 어려워 출입경작이 성행하고, 高價 작물로 도난방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생산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나. 인삼의 가공 및 유통실태와 문제

- 인삼은 수삼상태로 약 30%가 소비되고, 그 외 홍삼류(15%) 및 백삼류(55%)로 1차가공을 거치거나 농축액, 드링크, 차로 2차가공후 소비
- 홍삼류는 약 70%, 백삼류는 약 5%가 각기 2차 가공품으로 소비되고 나머지는 원형삼 형태로 소비
- 국민들의 연간 인삼구입량은 약 712g(수삼기준)으로 그 중 57.9%가 수삼이며, 나머지는 백삼이 25.3%, 홍삼이 16.7%를 차지하고 있음
- 국내시장에서는 수삼수요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해외시장에서는 복용이 편리한 2차 가공품 소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
- 인삼가공품은 홍삼, 태극삼, 백삼 등 원형삼류와 2차가공한 농축액, 분말류, 차류, 음료류 등으로 대별할 수 있으나 주로 수삼을 찌서 건조한 원형삼을 생산하고 있음
- 저년근 홍삼제조를 포함하여 다양한 인삼제품과 인삼을 원료로 한 건강식품 및 의약품개발 미흡
- 인삼가공업체는 400여 개소에 달하나 한국담배인삼공사 등 10여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가동율이 20~30%에 불과
- 홍삼전매제도 폐지('96. 7. 1)이후 홍삼류 제조사업에 참여한 신규업체가 15개(수삼처리 3천톤)로 늘어났으나, 그 중 한국인삼공사 2,800톤으로 대부분을 차지

<표 4> 인삼가공산업의 실태

구 분		업체수	수삼처리(톤)	비 고
원형삼 가 공	홍 삼	15	3,000	담배인삼공사 2,800톤
	백삼, 태극삼	138	6,000	
	소 계	153	9,000	
제 품	농축액, 차, 음료	260	3,000	식품위생법으로 보건복지부 관장

- 원형삼의 경우 인삼제품의 원료삼 가격이 비싸 가공업체의 자금압박과 마진을 제한되고 있으며, [인삼산업법]에 의해 농림부가 이를 관리하고 있으나 인삼차나 분말, 엑기스 등 2차 가공품은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가 관장함으로써 인삼산업을 이원화하고 있음
 - 대부분의 2차 가공품은 원형삼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미삼이나 체형이 고르지 못한 삼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분리관리가 어려움
- 인삼협동조합에서도 가공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대부분 원가부담이 큰 백삼이나 홍삼 등 원형삼제조에 참여하고 있으며, 상품의 종류와 품질에 있어서 조합간에 차이를 인식하기 어려움
 - 인삼의 종류나 연근, 원산지별로 성분과 약리효능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미흡하여 차별적인 유통의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수삼은 크게 2가지 경로를 통해 유통되는데 한국담배인삼공사와 계약재배된 원료삼은 공사가 구매하여 가공·판매하고, 나머지는 자율거래되는데 70~80%가 산지수집상 등에 의해 포전매매방식으로 거래
 - 백삼 및 태극삼의 경우 생산자가 직접 이를 가공하여 검사를 받은 후 중개인과 위탁상을 거쳐 도소매상으로 거래되거나, 아니면 전문상인이나 제조업자가 수삼을 구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에 검사를 받아 거래

<표 5> 지역인삼협동조합의 인삼제품 생산 및 유통실태

조합	제조	판매	상표	제품명	주원료
강화	강화삼협	수출	-	홍삼류, 태극삼류	수삼
김포	김포삼협	김포삼협	통일인삼	태극삼(고려태극삼), 태극삼분말	수삼
개성	개성농협	개성농협	한송정	백삼 및 피부백삼, 인삼정과, 인삼절편, 홍삼정	수삼
용인	용인삼협	용인삼협	용정삼	홍삼분말(고려홍삼분말), 홍삼음료(역홍록33)	홍삼, 홍삼엑기스, 한약재
충북	충북조합	충북조합	정삼인	홍삼차골드, 홍삼정골드, 홍삼정, 홍삼절편, 홍삼분말, 봉밀절편홍삼, 봉밀절편삼, 홍삼	홍삼
영동	영동삼협	영동삼협	-	태극삼류, 백삼	수삼
서산	서산삼협	수출	서산인삼	태극삼류	수삼
부여	부여삼협	수출	-	태극삼류	수삼
금산	금산삼협	수출	삼지원	홍삼류	수삼
전북	전북삼협	전북삼협	한전삼	홍삼정	수삼, 홍삼엑스
풍기	풍기삼협	풍기삼협	황풍정	홍삼류, 태극삼류, 백삼류	수삼
강원	강원삼협	강원삼협	-	백삼 및 피부백삼, 홍삼, 태극삼, 인삼야채주	수삼, 인삼, 쌀, 야채

- 최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인삼의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해 금산, 풍기 및 홍천(강원조합)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자단체가 인삼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산업축제로써 자리를 잡지 못하고 단조롭게 운영되고 있음
 - 지역인삼의 홍보 및 판촉 등 지역인삼산업의 활성화와 연계 부족

<표 6> 주요 인삼주산지의 인삼관련 지역축제

	주 관	일 시	주 요 내 용
금산인삼축제 (1981)	금산군 금산인삼 조합	9.14~9.23 (10일간)	산신제, 개삼제, 인삼요리 및 건강식품코너, 고려인삼 건강특별전, 한방진맥, 건강미용코너, 인삼캐기체험, 약초썰기, 인삼병만들기
풍기인삼축제 (1996)	영주시 풍기인삼 조합	10.6~10.10 (5일간)	인삼대제, 인삼씨앗뿌리기, 인삼캐기현장체험, 인삼요리만들어먹기체험, 전국우량인삼선발대회, 인삼장사씨름대회, 인삼보물찾기
강원인삼홍천 한마당(2001)	홍천군 강원조합	11.10~11.11 (2일간)	인삼재배사진전, 인삼농기계전시회, 인삼포모형전시, 인삼품평회, 인삼요리경진대회, 백삼제조체험, 인삼병만들기, 인삼요리시설회

다. 인삼의 수출입 실태와 문제

- 우리나라의 인삼수출은 1990년의 165백만불에서 '95년에는 140백만불, 그리고 2001년에는 75백만불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홍콩과 대만, 일본 등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침체로 인삼소비를 줄이거나 값싼 중국삼이나 서양삼으로 대체, 그리고 1995년 이후 중국의 수입의약품등록제 실시⁴⁾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품목별로는 홍삼류가 53%, 백삼류가 42%로 구성되어 있으나 홍삼제품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수출감소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백삼류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수출국가는 전 세계의 60여개 국에 이르고 있으나 80% 정도를 홍콩, 일본 및 대만의 3대 시장에 편중되어 있음

4) 중국,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홍삼, 백삼 및 인삼제품 모두가, 일본에서는 홍삼을 각기 의약품으로 취급

<표 7> 우리나라의 인삼수출 실적

(단위: 백만\$)

인삼의 종류	1990	1994	1995(A)	2001(B)	증감(B/A)
홍삼류	77.9	51.1	74.0	43.8	-40.8
- 뿌리삼	68.9	44.5	63.5	32.0	-49.6
- 제품	9.0	6.6	10.5	11.8	12.4
백삼류	78.0	53.8	59.1	25.6	-56.7
- 뿌리삼	18.4	12.1	7.8	4.6	-41.0
- 제품	59.6	41.7	51.3	21.0	-59.1
기타	9.0	8.7	6.8	5.4	-20.6
합계	164.9	113.6	139.9	74.8	-46.5

- 홍삼의 경우 약리효능이나 가공기술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품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경쟁국인 중국삼의 11배, 미국삼의 2.5배, 일본삼의 2배의 높은 가격으로 경쟁력이 떨어짐⁵⁾
 - 우리나라의 가격경쟁력이 낮은 것은 농촌노동력 부족과 노임상승, 기계화 부진 등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고급인삼의 차별적 유통전략 미흡, 그리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고부가가치상품 개발미흡, 그리고 홍보와 판매촉진 등 시장 개척의 부진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 대략 6,800톤(약 4억 6천만달러)로 추정되는 세계인삼시장에서 고려인삼의 점유율은 물량으로 2.8%, 금액으로 16%에 불과
 - 홍콩시장에서 고려인삼의 시장점유율은 1990년의 24.4%에서 2000년에는 17.9%로 줄어들고 있으며, 일본시장에서 한국인삼제품은 2000년까지 대략 수입품의 60%를 차지하였으나 2001년에는 45%로 감소

5) 홍콩시장에서 한국산 고려인삼의 평균 수입단가는 kg당 168.9달러인데 비해 중국삼은 14.5달러, 미국산은 65.7달러 수준에 불과

3. 인삼산업의 여건변화와 대응과제 : 무엇을 목표로, 어디로 가야 하는가?

가. 인삼산업을 둘러싼 여건변화

□ 국내 여건의 변화

- 인삼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국내여건을 살펴보면 먼저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와 인삼의 효능에 대한 배일이 벌어지면서 전체적으로 국내소비가 증가하고, 가공용 인삼원료를 공급하기 위한 직파재배나 임간재배 등 새로운 형태의 인삼재배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농촌노동력의 감소와 노임상승, 각종 농자재 비용의 인상에 따른 인삼생산의 수익성 악화, 연작피해 등에 따른 재배적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생산구조나 생산기반은 전근대성을 유지하고 있음
 - 그동안 정부와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인삼생산구조 조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음. 그러나 여전히 영세한 경작규모는 그대로 남아 있으며, 그밖에도 연작피해나 높은 중도폐지율, 출입경작, 저조한 영농기계화, 포전매매 등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 홍삼전매제도의 폐지와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 그리고 인삼관리업무의 농림부 이관 등으로 인해 이제까지의 정부통제에 의한 인삼산업이 시장질서에 따른 자율농정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과거에 비해 인삼의 재배와 수확, 가공, 유통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대신 정부에 의한 연구개발, 품질관리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지원은 취약
 - 그동안 인삼산업전반에 대한 계획수립과 지원을 담당해 오던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으로 그 성격이 변화하면서 公社에서 융자한 자금으로 추진하던 각종 지원사업이나 정부대행자로서 公社가 수행하던 公的 기능이나 지원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으나 민영화과정에서 인삼산업의 지속적 발전이나 경작자보호 등에 대한 대책이 미흡

□ 대외 여건의 변화

- 자연식품 및 건강식품에 대한 인식변화로 세계 인삼시장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인삼수출액은 1990년의 164.9백만불에서 2001년에는 75백만불로 감소하고 있음

- 이는 중국이나 미국 등 경쟁국의 인삼생산 및 수출 노력과 함께 국내 인삼생산의 가격경쟁력 약화, 다양한 제품개발 미흡, 그리고 인삼에 대한 기호와 소비방법, 관련제도가 각기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적절한 수출정책을 추진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 특히 인삼제품을 중심으로 세계인삼시장이 변화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인삼제품'을 [인삼산업법]상의 '인삼류'의 정의에서조차 제외하고 있음
- GATT협상에 따른 농산물 교역자유화 및 關稅引下 조치로 1995년의 34.1톤에서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2004년까지 56.8톤의 최소시장접근 물량을 수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기간 관세도 홍삼 838.1%, 백삼 247.6%에서 각기 754.3% 및 222.8%로 인하하도록 되어 있음
- 해외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방법으로 고려인삼 재배가 확대되고, 한국인의 현지 인삼농장 및 인삼가공공장 설립이 늘어나면서 세계적으로 기술의 평준화되고, 외국산 인삼류의 수입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음
 - 특히 최근에는 중국의 WTO가입으로 값싼 중국산인삼의 유입가능성이 커지면서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및 유통 등 인삼업계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표 8> 우리나라 인삼산업에 대한 SWOT 분석

구 분	기 회(O)	위 기(T)
강 점(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삼생산, 가공 및 유통 규제완화 - 건강에 관한 소비자관심 증대 - 세계시장에 널리 알려진 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국의 노력과 도전 - 농산물수입개방 가속화 - 중국의 WTO 가입
약 점(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력 부족과 노임상승 - 연작피해, 경작적지 부족 - 영세제조업체 난립과 과당경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삼산업 관리체계 미비 - 인삼조합중앙회의 통합 - 인삼공사/인삼연초연구원 기능상실

나. 우리나라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대응과제

- 정부는 이상과 같은 여건변화 속에서 농가경제향상 및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인삼산업중장기발전대책(2000)’의 수립하고, ① 생산기반확충으로 고품질 인삼생산, ② 유통구조개혁으로 인삼유통의 활성화, ③ 제조가공산업 육성으로 인삼의 부가가치 증대, ④ 해외홍보 강화로 고려인삼의 우수성 및 차별성 부각, ⑤ 수출확대로 고려인삼의 해외명성 회복, ⑥ 연구기능 강화로 인삼산업육성기반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표 9> 인삼산업발전을 위한 대응과제

대 응 과 제	사 업 내 용
인삼생산의 효율성 제고	새로운 품종육종, 양직묘삼 등 우량 종묘생산 및 보급, 유기질비료 등 인삼전용농자재개발, 고품질청정인삼생산, 임간재배 및 산양삼생산, 기계화영농, 전문삼농인육성, 경작면적 확대 및 생산기반 구축, 인삼경작기술교육
인삼가공산업 활성화	건강기능성 식품·의약품 등 다양한 인삼제품개발, 인삼저장·포장·보관기술개발, 인삼의 효능규명, 가공업체의 시설현대화, 원료구입 및 경영개선자금지원
인삼유통질서 확립	인삼수급조절방안, 계약재배 확대, 고려인삼의 성가유지, 인삼의 품질 및 등급 표준화, 연근·품질·생산지 등의 표시제도와 품질인증제도 도입방안, 불법유통 단속
인삼수출증대 및 효율적 수입관리	해외시장조사, 수출질서 유지(과당경쟁 및 덤핑판매 방지), 국제인삼거래상육성, 제품의 다양화와 수출선 다변화, 홍보 및 판매촉진, 국제세미나 및 박람회개최, 인삼 Codex규격 제정
인삼관련 지원 및 제도개선	인삼산업육성을 위한 조세 및 금융지원, 관련제도개선 및 행정관리체계 정비, 인삼경작기술지도, 생산자단체의 육성, 연구개발 활성화, 생산비 등 기초자료 수집 및 제공

- 아직 사업의 성과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우리나라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① 인삼생산의 경쟁력 강화 ② 인삼관련산업의 육성, ③ 인삼의 수급안정과 유통질서 확립, ④ 인삼수출 촉진이 필요함
-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심과 지원, 인삼산업의 주체로써 생산자단체의 육성, 인삼부문에 대한 연구개발, 그리고 인삼관련 제도와 추진행정체계의 정비가 필요

4. 인삼산업의 발전방향 :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1] 정확한 수급예측에 의한 계획생산으로 인삼 수급과 가격 불안정 해소

- [인삼산업법]에 계약재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으나 인삼은 장기간에 걸쳐 많은 비용과 위험이 내포된 작물인 만큼 생산자와 가공업체 모두 선뜻 계약재배에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따라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인삼의 수요 및 공급에 대한 기초통계를 정비하는 한편 계약재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 강구
 - 계약당사자에게 식재자금 및 사전지급금과 원료구입자금 저리융자 한다든지 계약재배 농가에게 정부가 최저가격예시제 적용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이를 수매·비축하여 수급조정

[2] 인삼생산비 절감 및 품질향상을 통한 경쟁력제고

- 인삼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경작규모 확대와 생산기반정비를 통한 기계화 영농을 정착시키고 전문삼농인의 발굴·육성과 함께 외부의 자본과 전문경영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집단경작지 조성과 공동인삼포 운영 등을 통한 인삼경작 규모확대와 생산기반 정비
 - 인삼 전용농기계의 개발과 기계화 영농의 정착
 - 생산적지 확보를 위한 과수원 나무밑재배와 임간재배의 촉진
 - 기업적 경영마인드를 지닌 전문경영인력 양성 및 농기업육성
- 한편 “동양의 신비한 영약”으로 널리 알려진 고려인삼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고품질 청정인삼’과 ‘대편 우량인삼’, 또는 ‘장뇌삼’이나 ‘산양삼’과 같은 고급인삼의 생산으로 품질향상
 - 인삼전용 유기질비료와 양직묘삼 생산·보급
 - 인삼경작기술의 개발 및 보급
 - 포지별 경작관리 및 작황상태를 전산화하여 영농의 과학화 추진
 - 지역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인 인삼 및 인삼제품의 생산과 상품차별화를 위한 품질인증제도의 도입

[3] 인삼가공 및 유통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 증대

-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복용(음용)이 간편한 건강식품이나 고부가가치 의약품 등 다양한 인삼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인삼가공업체의 시설현대화, 원료 확보, 경영개선자금 지원 확대
- 특히 인삼의 생산-가공-유통 계열화를 촉진하고, 이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 중 생산자들에게 귀속되는 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생산자단체에 대한 선별, 포장, 저장, 가공시설의 지원과 함께 대규모 소비처와의 직거래 및 계통출하를 촉진
 - 고급인삼 원료의 안정적인 조달과 품질확인을 위한 계약재배 촉진
- 인삼제품(2차 가공품) 제조업을 인삼가공산업에 포함하여 관리행정의 일원화

[4] 인삼유통구조의 개선과 유통질서의 확립

- 인삼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① 인삼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공판장의 설치·운영과 경매제도의 도입, ② 인삼 및 인삼제품의 등급 및 규격에 대한 기준 확립, ③ 인삼에 관한 새로운 기술, 경영, 국내외시장에 관한 데이터베이스개발 및 신속한 제공, ④ 인삼의 생산 및 수요에 대한 관측사업 실시 등이 필요함
- 생산자단체의 유통참여 활성화 및 계통출하 촉진
 - 생산자단체에 대한 선별, 포장, 저장, 가공시설의 지원 확대
 - 대규모 소비처와 직거래 및 계통출하 확대
- 미검사품이나 밀수외국인삼의 불법적인 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되 궁극적으로 제품의 성가유지나 품질관리는 생산자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함
 - 연근과 외형을 중시하는 고려인삼의 특징을 구체화하여 차별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품질기준의 설정
 - 생산자단체가 품질인증차원에서 연근, 품질 및 원산지표시를 하고, 수삼생산 및 유통확인서 발급으로 이를 자율적으로 관리

[5] 인삼의 수출촉진과 효율적인 수입관리

- 인삼수출의 증대를 위해서는 제품의 다양화와 수출시장의 다변화, 그리고 목표 시장별 제품전략, 가격전략, 유통채널 및 홍보·판촉전략 구사
 - 대만, 홍콩, 중국 등 원형홍삼 중심의 수출전략에서 탈피하여 수출지역, 제품 및 가격의 다양화로 수출시장의 다변화
 - 수출입제도, 인삼시장 실태와 소비자들의 선호도 등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조사 연구 강화

- 국제시장에서 과당경쟁 및 덤핑, 고려인삼의 성가유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수출업자에 대한 등록과 해외시장관리를 위한 수출물량, 가격 및 품질에 대한 관리
 - ‘고려인삼수출진흥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상품의 종류와 현지시장의 특성을 기초로 해외시장에 대한 공급관리
- 수출용 원료수매자금 및 가공시설 현대화 설비자금, 신 시장 개척 및 신제품 개발에 대한 자금지원과 수출업체에 대한 장려금 지원
 - 대 중국 및 유럽 시장개척을 위한 해외 전시판매장 설치운영과 의약품 및 건강식품 등 인삼제품류의 현지 합작생산 가능성 모색
- 고려인삼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① 고려인삼의 이미지 광고를 위해 정부와 수출업자가 공동광고, ② 인삼영화 제작, ③ 우수 도·소매상 방한사업, ④ 고려인삼의 효능에 대한 현지세미나 개최, ⑤ 현지의 저명한 학자나 연구기관에 연구비나 시료 제공
- 효율적인 수입인삼관리를 위해 수입 인삼류의 분류(의약품 및 식품)와 통관 검사기준 강화
 - 외국인삼의 수입과 최소시장 접근물량의 국영무역방식 적용

[6] 인삼분야의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전문연구기관의 설치, 운영

- 현재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이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중앙연구소로 운영되고 있으나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에게 공익차원의 기초연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 농촌진흥청에 과거 인삼연초연구원의 경험과 전문인력, 시험포 등을 추가하여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를 활성화하여 인삼종주국으로써 인삼에 관한 국제기준의 설정, 인삼제품국제박람회개최, 인삼의 재배방법 및 효능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 등 전 세계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공공적 역할의 주도적 수행
 -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관련연구기관과 연계성 강화
- 민간부문의 인삼연구활동 지원 강화
 - 국내외 우수 병원이나 제약회사 및 대학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인삼의 효능규명, 한약재나 민간요법 등을 응용한 기능성식품개발 촉진
 - 연구개발비를 수익자가 부담하는 종묘, 농기계, 제약회사, 비료 및 농약 등 민간회사의 자체적인 인삼연구활동 지원

[7] 인삼산업의 발전주체로서 생산자단체 육성

- 생산자단체에 의한 자율적인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① 인삼협동조합의 기능을 재정립, ② 조합 관할구역의 조정, ③ 중앙회와 지역조합간의 합리적인 역할분담, ④ 가공 및 유통업자의 조합원 흡수 등 조합기능 활성화를 위한 조직정비가 필요
 - 정책과제로 제시한 수급조정이나 계약재배, 품질향상 등 경쟁력제고, 유통구조의 개선과 가공 및 유통산업의 활성화, 수출입관리, 기초자료의 생산 및 제공 등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생산자단체의 공적기능을 제도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농림부와 재경부는 물론 회원조합 등과 역할을 분담하고, 생산자단체의 자립경영기반 확충을 위한 가공, 유통 및 수출입 등 경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와 시설확충, 사무자동화 장비 현대화
 - 최근 설립한 '농협고려인삼주식회사'를 중심으로 통합농협이 가진 자원·판매망·관련사업 등을 활용한 시너지효과 창출, 인삼관련업계 등과의 전략적 제휴 확대 및 회원조합과 연합마케팅 추진
 - '인삼을 사랑하는 자랑스런 국민의 모임(인사모)'을 통한 국민적 역량결집, '인삼의 날' 행사를 세계적 인삼축제로 발전, 산(山)에 인삼심기행사개최나 인삼과 한약재를 중심으로 한 보양단지 개발등 세계소비자를 대상으로 인삼관련 문화상품 개발, 고려인삼의 품질 및 브랜드 관리, 고려인삼에 대한 공동연구 및 홍보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남북협력 강화 등 기타 인삼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역할 강화

[8] 인삼산업관련 제도와 추진행정체계의 정비

- [인삼산업법]에 제품을 포함한 인삼의 생산, 가공, 유통뿐만 아니라 검사, 수출입 및 연구개발,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포함하고, [식품위생법]의 인삼제품의 제조허가 및 수출입관련 규정을 [인삼산업법]으로 이관해야 함
 - 특히 인삼제품사업을 인삼산업에서 제외해 놓고는 새로운 인삼수요의 창출이나 인삼산업의 활성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뿌리삼과 제품부문을 통합해야 함
 - 인삼제품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과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 강구
- 종합적인 인삼행정 추진체계 구축하고 여러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관련업무와 사업 및 예산을 통합하여 '국가전략산업'으로써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해 종합적으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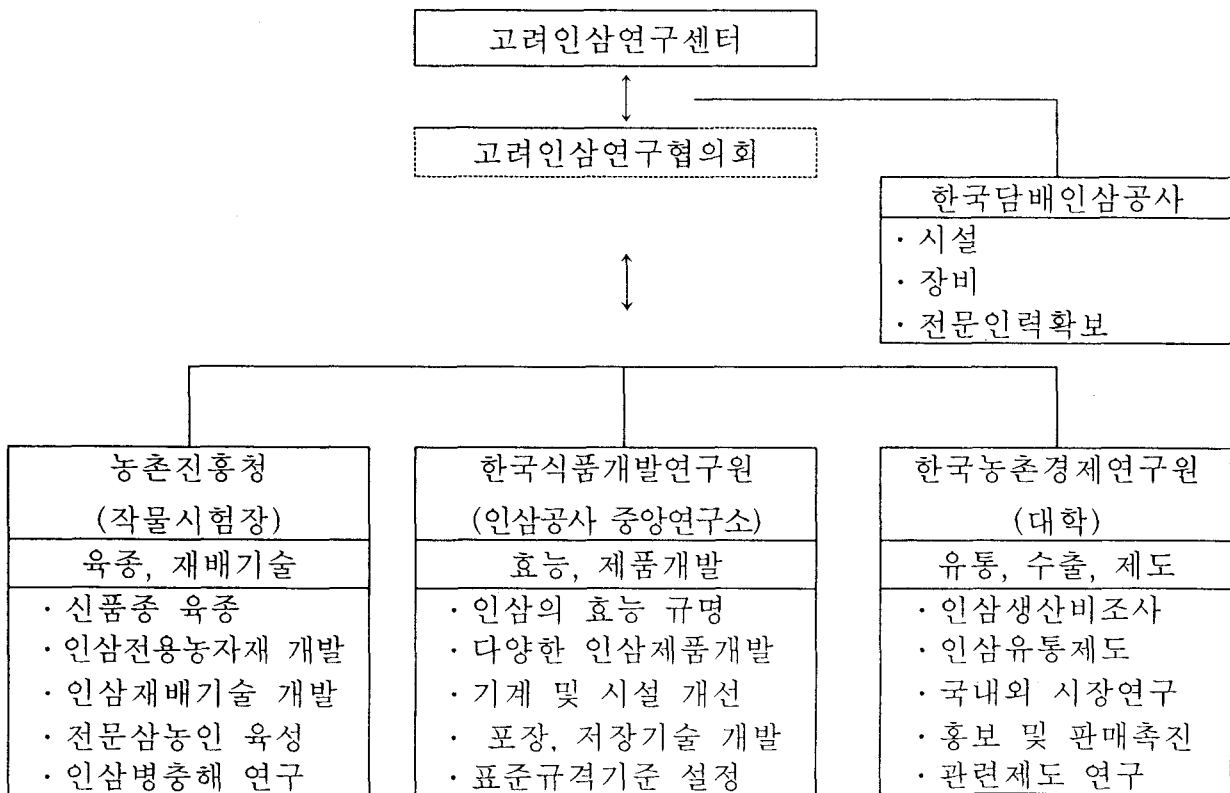
- 그동안 공사 또는 국립농산물검사소에서 수행해 오던 인삼부문의 공공적 기능을 생산자단체에 이관함으로써 생산자단체 스스로가 인삼산업 육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5. 맺는 말

- 인삼부문에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발전잠재력과 세계소비자들의 건강, 자연식품에 대한 관심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면 인삼산업은 개방화의 물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농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성장·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고려인삼의 원산지인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반도 주변이며, 오랫동안 국가전매제도를 통해 축적한 '인삼종주국'으로써의 이미지와 기술 및 품질관리 능력
- 특히 '고려인삼'은 농가의 소득작물이나 수출전략농산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유한 文化이자 자존심이기 때문에 고려인삼을 쿠바의 시거나 스위스와 네델란드의 치즈, 프랑스의 와인과 같은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국민적 관심과 노력,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임
- 인삼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표 9>에서 대응과제로 제시한 바와 같이 ① 인삼생산의 경쟁력 강화, ② 인삼가공 등 관련산업의 활성화, ③ 인삼유통질서의 확립, ④ 인삼수출증대 및 효율적인 수입관리, 그리고 인삼산업관련 지원 및 관리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며,
 - 이와 같은 대응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공익적인 차원에서 인삼의 육종/재배-효능/가공-유통/수출입 등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 할 수 있는 '인삼연구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필요
- 공사 민영화과정에서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 인삼연구부분을 분리하여 '인삼연구센터(가칭)'란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들이 있었으나 실현되지 못하고 민간기업의 부설연구소로 전락하여 더 이상 공공연구기관으로써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움
 - 따라서 공익차원에서 고려인삼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인삼연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 대안으로 ‘고려인삼연구센터(가칭)’를 설치, 운영하되 당장 연구소를 설립하기에는 예산이나 인력조달에 문제가 있는 만큼 기존의 농촌진흥청과 한국식품개발연구원, 그리고 농촌경제연구원 등의 연구인력과 연구비를 보완, 인삼분야의 주관 연구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들을 연계한 ‘고려인삼연구협의회(결성)’를 운영함으로써 인삼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의 발굴과 해결에 체계적,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방안 강구
 - 농촌진흥청의 경우 인삼의 신제품종육종, 전용농약이나 농기계, 재배기술개발 및 보급은 물론 연작피해, 중도폐포 등 그동안 인삼생산의 고질적인 장애요인을 극복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력이나 예산부족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
 - 또한 한국식품개발연구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해 ‘인삼주와 인삼죽 등 제품개발’이나 ‘인삼산업발전방안’, ‘인삼수출증대방안’ 등 부분적인 연구를 그 때마다 필요에 따라 수행하고 있으나 인삼산업이 당면한 문제해결에 한계

<그림 1> 고려인삼연구센터(가칭) 설치 구상



- ‘고려인삼연구협의회’는 기존의 인삼분야의 연구사업비와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인력과 예산을 추가 지원하되 Pool로 운영하여 인삼과 관련된 일체의 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인삼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의 거점으로 활용하되 장차 ‘고려인삼연구센터’로 발전
 - 협의회의 기능은 ① 인삼분야의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연구비 재원을 모아 Pool로 마련하고, ② 공익차원에서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해 수행해야 할 과제를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며, ③ 연구결과를 DB화하여 공유하며, ④ 인삼분야의 전문가를 Network화하여 인삼분야의 지식 및 정보를 집적·관리하는 기능 수행
 - 연구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연구사업비 등 예산은 정부와 연구수혜자인 한국담배인삼공사, 생산자단체, 그리고 가공 및 유통업자 등이 공동으로 부담
 - 인삼분야에 새로운 공공연구기관이 설치되거나 이와 상응한 기능을 수행하는 협의회 등이 결성되면 그동안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축적된 연구결과와 시험포자 등 인삼부분의 공적재산을 이 기구에 이관되는 방안강구

<부 록>

인삼에 대한 기초연구, 없어서는 안 된다

이동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며칠 전부터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이 ‘한국담배인삼공사(KT&G) 중앙연구원’으로 간판을 바꾸어 달게 되었다.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은 1937년 조선총독부 전매국연구소로 발족한 이래 65년 동안이나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공익차원의 기초연구를 담당하여 우리나라 담배 및 인삼산업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이를 7월이면 민간기업으로 바뀌는 공사의 부설연구소화 한다는 것은 이 분야에 대한 기초연구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인삼분야의 경우 홍삼의 생산 및 판매에 있어서 공사와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KT&G 부설연구소를 통해 인삼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 폐쇄 결정은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가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재정경제원은 “담배제조독점 폐지로 한국인삼연초연구원에 대한 공사의 연구비 지원 명분이 없어진 상황에서 연구원이 자력으로 생존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 농작물과는 달리 담배와 인삼은 공사와 연구원이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을 대신하여 관리해 왔기 때문에 쌀이나 과일, 채소와 마찬가지로 인삼에 관한 기초연구도 정부가 수행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전매공사(JT) 민영화시 생산자단체를 통해 연구개발 및 지도사업을 지원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공사는 해마다 엄청난 규모의 공익사업비를 지출한다는 점에서 “연구비를 지원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은 전매사업에 기여한 인삼분야의 공로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 처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의 절차와 방법이 합리적인가 하는 점이다. 인삼분야에 대한 기초연구의 필요성 때문에 공사의 민영화에 대한 논의 초기부터 한국개발연구원(1996.5)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96.12)등은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을 “정부출연에 의한 종합적인 인삼연구 및 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하여 세계인삼산업의 중추거점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없이 연구원을 공사의 내부기관화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는 것은 지나치게 공사의 이익만 대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더구나 2001년 말 공청회에서 “향후 인삼경작자들과 관련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나 적절한 후속조치 없이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인삼계의 반발은 이미 예상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셋째는 인삼부문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과제를 공공부문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다. 오랫동안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6년 이상의 고년근인삼은 아직도 재배가 불가능하고, 연작피해(連作被害)가 심해 이동경작(移動耕作)을 할 수밖에 없으며, 연근확인이나 장기저장이 어려워 생산성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삼이 암, 당뇨병, 동맥경화증 및 고혈압 등 성인병은 물론 불치병으로 알려진 에이즈, 그리고 빈혈과 항스트레스작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학계의 보고가 있으나 아직도 소비자들이 신뢰할 만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글로벌시대에 있어서 인삼산업에 특화하는 것은 분명 한국농업의 선택이 될 수 있지만 인삼은 고가의 다년생 작물로 경작농가나 영세한 기업이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이를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인삼을 프랑스 포도주나 스위스 치즈, 쿠바 시거처럼 세계적인 명품으로 만들고 문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생산-가공 및 유통 관련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출연기관 형태의 전문인삼연구소의 존치를 강조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이 더

이상 논의해 볼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면 농촌진흥청에 '인삼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인삼관련 생산-가공-유통 및 수출입에 관한 기초연구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역시 적절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줄 알지만 그렇다고 60~70년대의 보릿고개에서도 의연히 추진해 온 인삼에 대한 기초연구를 여기서 중단할 수야 없지 않겠는가? 인삼은 반만년 역사를 통해 축적한 바이오테크놀러지의 결집체이자 세계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한국농업의 미래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이다(농민신문, 2002).